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전 지구적 변화를 접하게 된다. 지구환경으로 보면, 자연을 향한 사람들의 거리 두기로 맑은 풍경이 되 돌아왔다거나 야생 동물들이 도심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 환경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집단화된 모임은 거의 사라지고 개별화되거나 파편화처럼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변화를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전망하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무튼 향후 코로나로 인한 이런 변화에 따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생명에 대한 인식, 삶의 양태 등이 더불어 변하고 바뀌게 되는 일은 자

다시 '易'을 생각하며

연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지구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대부분은 문명에 의존한 우리 인간의 폭력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문명에 대한 맹신이고 삶의 가치에 대한 맹목이다. 문명의 관점에 대한 대전환이 가능할까. 한자어 '易'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대표적이다. '변하다', '바꾸다' 그리고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 세 가지의 의미들이 개별적임에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변하다, 바꾸다'는 '역'이라고 읽게 되지만 '쉽다'는 '이'라고 발음을 해야 한다. 그리고 '易'은 '易經(역경)'에 따르면 '만상(萬象)의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오래전 '易'이란 말의 뜻을 살펴보다가 '易經(역경)'에 나오는 '生生之謂易(생생지위역)'이란 말의 의미, '끊없이 창조되는 세계'를 생각했던

때문인지 '변하다', '바꾸다' 그리고 '쉽다'의 의미 관계가 교묘하게도 분 명해졌던 기억이 있다. 서로의 다른 뜻인 '변하다'와 '바꾸다'는 객체의 문제, '쉽다'는 주체의 문제라고 여기며 그 관계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다가 자식으로 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상황이 변하고 서로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고집스러운 부모가, 또는 외부 지향적인 자식이 어쩌다 변하고 바뀐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이 변화와 위치의 이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삶이 쉬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쉽다'는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 수 있는 주체가 가지는 특권이다. 갈등은 대타에 대한 대립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운용에서 나타나게 된다. 어떤 결정에서 쉽지 않은 경우

를 말한다.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십대나 삼십대의 열정을 오십이나 육십이 되어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변하고 바뀌다. 그러면서 더욱 성숙해진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의 변화와 위치의 이동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고요를 얻으면 그만이다. 미래 사회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자연과 문명의 모습도 변하고,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위치도 다양하게 바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삶도 예단하기는 어렵다. 변하고 바뀌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명을 세어나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류 공동체 의식이 대두했다는 사실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오랜 인류의 꿈이다.

열린마당

서귀포 올레길과 멋진 주무관 변호사



임 광 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올레길에는 자연과 인간이 같이하는 공생, 길을 같이 걷는 사람 또는 길을 건다가 만나는 사람과의 공존의 길이 다. 올레길은 시민 모두의 길이면서, 도민 모두의 길, 국민 모두의 길이다. 그런데 올레길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의 길이 아닌 모 호텔이 독점해 사용한 것이 발견된 것이다. 호텔에서 올레 6코스와 연결한 지목상 도로 3필지를 30여 년 동안 사용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호텔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담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인 이지원 주무관 등이

나섰다. 이 주무관은 행정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쟁점 정리부터 리개발까지 많은 사례와 법리를 찾고 연구했다. 그리고 직접 서귀포시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준비 기일부터, 변론일까지 매번 논점을 정리하고 논리와 법리 대결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했다. 서귀포시에서 변호사를 주무관으로 채용하고, 근무한지가 몇 년이 됐다. 그동안 직원들이 법리적으로 애매한 사항 상담, 시민들의 법률 상담 등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행정은 여러 판단 요인이 있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가장 기본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도 수시로 변하는 법률을 모두 알 수는 없기에 실수하기도 한다. 이런 실수를 변호사 주무관이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서귀포시에도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이나 법률지원과가 생기는 꿈을 꾀한다. 그렇다면 알찬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민선7기 행정시장 인선작업 속도

이번주 중 인사위원회 개최

○...일각에서 '내정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지역사회 이목을 끌고 있는 민선7기 후반기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인선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양 행정시장 면접심사가 이날 마무리된 가운데 공직자와 정치인 출신 등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각각 2-3인의 임용후보자에 포함됐을지 관심.

이어 이번주 중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추천자 중 누가 원희룡 지사의 낙점을 받게 될지 주목. 오은지기자

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

○...제주시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6-8월 숙박·목욕·세탁업 1014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 이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는데,

업종별로 31-43개 항목을 평가 후 최우수·우수·일반관리 대상 업소로 등급을 부여하고 연말 시 홈페이지에도 공표 예정.

시 관계자는 "최우수 업소에는 우수업소 표지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위생서비스 향상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긴요치 않은 업무는 연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6월 실시 예정인 '종합(재무) 감사'를 연기하기로 결정.

제주도교육청은 초등 8개교·중학교 1개교·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인 감사를 2021년 이후로 순연한다고 2일 발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긴급요청이 제기됐다"며 "향후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하향됐을 때 감사 재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사설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만이 능사인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 만남을 불허하면서 생이별의 또다른 아픔을 겪고 있으니 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외부인 면회를 금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모신 부모님을 뵈고 싶다는 가족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원 65곳, 양로원 2곳, 요양병원 10곳 등 총 77곳입니다. 각 시설별로 보면 요양원에 3292명, 양로원에 79명, 요양병원에 1061명이 입원 또는 요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외부인 면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환자인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고령환자는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인과

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안타깝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외부인 면회 금지 취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령환 입소자들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 입원 중인 면회 금지가 노인 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과 단절된 어르신들이 자칫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병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중증 치매 어르신이 "왜 자식들이 오지 않느냐"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투명 차단막을 갖춘 면회소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가 이미 낙담해 접어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도내 첫 대학교수 노동조합 출범

도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수노조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도 마련된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한라대 교수노동조합(초대 위원장 고재문)은 지난달 28일 제주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대학교수 노조로 처음 출범한 사례입니다. 한라대 교수노조 조합원은 142명의 교수 중 대다수인 118명에 달합니다. 교수노조 출범은 법 개정 이전부터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작년 11월 창립총회서 임원진 및 학부별 대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전체 교수의 83%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어 왔습니다. 한라대 교수노조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회복과 함께 대학교원들의 교권과 복지향상, 그리고 위상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한라대는 부당노동행위, 교수협의회 소속 특정교수 불이익 등으로 학교·구성원간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교수들은 이 과정에서 대학내 연구와 교육의 주체로서 자율성·창의성을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국 노조 설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교수노조 출범이 학내 또 다른 갈등요인이 아닌 학교 당국과 교수간 소통의 새로운 계기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들은 이미 사회변화, 취업교육, 구조조정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교육의 방향·목표·공공성도 크게 흔들리는 위기상황입니다. 결국 대학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시대적 인식속에 학교·교수간 소통은 '선'을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성

**금매**  
• 품 목 : 운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에브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지사 732-555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